



추가 양적완화정책 가능성과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월 26일 미 연준은 1월 FOMC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기상황에 따라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2012~1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함.

- 버냉키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실업률이 매우 더딘 속도로 하락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양적완화정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함.
- 또한, 연준은 2013년 중반까지 최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14년까지 최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며,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.9%에서 2.2%로 수정하고 2013년 전망치도 3.0~3.5%에서 2.8~3.2%로 하향조정함.
- 이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강세를 나타냈으며, 달러화 약세에 대한 우려로 금값도 상승함.

■ 한편,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데다 소비자 기대지수도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됨.

- 20개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을 지수화한 케이스 실리지수가 10월 전월대비 0.7% 하락한데 이어 11월에도 0.7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- 2011년 하반기 주택시장 지표들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었으나, 11월에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남.
- 컨퍼런스 보드의 1월 소비자 기대지수도 전월에 비해 3.7 포인트 하락한 61.1을 나타냈으며, 미 상무부가 2011년 12월 실질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고 발표함에 따라 2012년 상반기 민간소비 회복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.

(LA Times, 2/1 등)